3학년을 보내며

홍성조 / 교사 · 생물

1986년 2월,

황량하기만 했던 만수벌판 한쪽을 가로 질러 우뚝 선 텅-빈 교사에 신입생을 맞기 위해 사령장을 받고 처음 부임하던 그 날!

우린 빈 교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난로를 설치하고 서성이면서 개교 준비 및 신입생 맞기 준비를 구상해야 했다. 임시로 난로를 지피운 교실을 교무실로 정하고 우선 우리 교사들의 책상부터 들여와야 했다. 그리고 각 특별실의 각종 집기및 필요기구재를 적재 적소에 배치했다. 학기 초부터 불편 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는 동안 빈 교실에 책걸상도 들어 왔다./그러고 나니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 교실을 꾸며야 하고 국기도 달고 교훈도 달고 문마다 맞는 열쇠를 골라 표시도 해야하고……. 그런 와중에도 우린 교재 준비및 수업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다. 없는 일손인데도 문교부나 국정교과서 주식회사를 몇 차례나 왕복하며 교사용 지도 및 참고 자료 구비에 열심이었고 일부는 신입생을 위해 과제물도 준비했다.

드디어 추첨일이 왔다. 모두들 긴장했다. 주인공들인 그들이 이제 곧 밀려들어 올 것이기 때문이였다. 어떻게들 생겼을까. 예쁜 놈들일까, 개구장이들일까 모두들 서성이면서 아침 일손이 안 잡힌다고 초조해 하면서 잔뜩 기다림에 가슴 설렌 모습이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예, 문일여고입니다. 아- 22번을 타셔서 학교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16번을 타시면 구 보르네오 자리 앞에서 내리셔서 약 5분쯤 걸으시면……"

"네? 부평이라구요? 이선생님 부평서 오려면 몇 번 타면 되나요?"

"아, 거 두 번 타면 될 겁니다."
"농담할 시간 없어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학교 위치가 어디야!" '왜 그런 구석에다'-
"네?!! 네에~!!??!!"
"누구 자식 고생-"

우리들의 보람 3학년들의 첫 날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면서 시작이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동안 학교 안팎이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으로 많은 실망도 안겨 준 그들이었으나 우리 교사들의 마음엔 그럴수록 굳은 각오가 더욱 새로와지기만 했다.

얼마후 그들은 학원 산하 모든 분들의 축복과 보살핌 속에 입학식을 갖고 소중히 405개의 목화씨를 이곳 만수동 209번지에 심었던 것이다.

봄이 왔다. 아지랭이를 동반하고서.

서먹서먹했던 사이들이 하나둘 친하게 여겨지고 잘 모르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익혀져갈 무렵 어느 새인가 낯설었던 교정의 구석구석이 벌써 눈에 익어 정이 들어가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정열적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가르치심에도 익숙해지고 공부 방법도 저마다 터득하여 하나 둘 두각을 나타내면서 모두들 공부에 열을 올리는 사이 개교 첫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작년에 첫 해의 거의 두 배나 되는 신입생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은 두배로 줄었다. 물론 전화벨도 두배나 적게 울렸다. 후배들은 선배들 만큼이나 욕심이 많고 똑똑하며 당돌했다. 그들은 선배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고 앞질러 가려 부단히도 애를 썼다.

그러는 동안에 한 해가 또 가고 올 해가 벌써 개교 3년째이다. 드디어 우리 학교도 3학년이 생겼다. 후배들을 뽑지 말고 3년을 자기들하고만 지내자며 응석을 부리던 그들이 이제 최고 학년이 된 것이다.

물론 금년에도 신입생들은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우는 아이는 커녕 전에 그랬던 그 날임에도 그런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만큼 우린 열심히 2년간을 가르쳤고 또 그들은 잘 따라 주었던 것이다. 2년간을 우린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이제 머지않아 개교후 첫 졸업식이 거행될 것이다. 눈물을 머금고 입학한 그들의 축복받은 졸업식 말이다. 그러나 졸업과 함께 이어지는 그들의 앞날엔 더이상 눈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를 못할 것이다. 만수동 209번지의 문일여고 3년을 소중했던 아름다운 추억들만을 간직한 채. 애들아! 잘들 가거라.